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속보:연준, 금리 0.25% 인상...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고물가 계속 해 예의주시 입장 보여**
- Bloomberg: 4월 미 고용, 9개월만에 가장 큰 폭 증가
- Th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s services index:4월 미 서비스 부문 '안정된 성장세'...ISM 조사
- WSJ:근로자 올해 임금 상승 희망... 고용주는 'No'
- WSJ: 전 연준 부의장, "오늘 금리 인상후에 인상 중단해야"

[미국 금융]

- Bloomberg:월스트리트, "지역은행 위기 아직 진행중"에 베팅
- Bloomberg:연방 재무부, 빠르면 8월부터 크게 매각, 2024년에는 환매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1백60억불 '게이트 터널' 한단계 진척

[한미 경제 관계]

- KOREA MATTERS FOR AMERICA MATTERS FOR KOREA:한국과 미국간의 경제 관련 팸플렛 정보 (한국 영어 병기)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미동부 지역에 1백70개 새 비행 항로 개편
- CNBC: 스페이스 X, 올해 비행선 궤도 진입에 20억 지출
- Bloomberg: TSMC, 최대 100억 유로 규모의 독일 칩 공장 건설
- bloomberg:Airbnb, 주택 단기임대 서비스 플랫폼 개편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속보: 연준, 금리 0.25% 인상...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 연준은 오늘 수요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리고 경제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긴축 노력이 이번이 마지막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위원회는 계속 입수하는 경제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이한 점은 지난 3월의 성명서에서 표기한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를 삭제해 이번 긴축 조치가 (추가 조치가 없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 동시에 계속적인 고물가 현상에 대한 예의 주시 입장은 계속 할 것으로 알려졌다.

Bloomberg: ADP Data Surprise With Biggest Private Payrolls Gain Since July

4월 미 고용, 9개월만에 가장 큰 폭 증가

- 오늘 수요일 ADP Research Institute와 Stanford Digital Economy Lab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미 고용 숫자가 3월에 14만2천명(수정 상향치)에서 4월에는 무료 29만6천명 늘어났다.
- 경제가 둔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증거다.
- 그런데 지난 4월 일자리 증가세는 빨라졌지만 임금은 둔화하였다 일터를 바꾼 사람의 연봉 평균 증가율(median increase)이 3월에는 14.2%였으나 4월에는 13.2%로 줄었다.

Bloomberg 기사

Th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s services index is expected to rise to 51.8 in April from 51.2 one month earlier.

4월 미 서비스 부문 '안정된 성장세'...ISM 조사

- 수출이 성장하는 가운데 신규 주문이 증가하면서 미 4월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공급자관리협회(ISM)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비제조 분야 구매관리지수(PMI)가 3월 51.2에서 4월에는 51.9로 상승했다.
- 수치 50이 넘으면 서비스 분야가 성장세를 보인다는 수치인데 서비스 분야는 미국 경제의 비중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당초 예상치는 51.8

US News & World

WSJ: Employees Are Bullish on Pay Raises, Companies Not So Much 근로자 올해 임금 상승 희망... 고용주는 'No'

- 미 근로자들은 올해 임금 상승이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고용주는 다른 입장이다. 많이 올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
- 근로자의 입장은 생활비가 오른 탓인데 근로자들의 생각은, 최근 경제 전방에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 기대하고 있다는 것.
- 그러나 고용주들과 기업 컨설팅회사들에 따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근 경기 둔화 우려와 고금리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제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편 기업들은 예상보다는 적지만 임금 인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용주들은 평균적으로 3.8%의 성과급에 총 보수는 4.1%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Fed Should Pause Rate Increases After This Week, Former Vice Chair Says

전 연준 부의장, "오늘 금리 인상후에 인상 중단해야"

- 연준의 전 부의장인 Richard Clarida는 이번주, 즉 오늘 수요일 연준이 금리를 한차례 인상한 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런 이유로, 그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누적된 여파와 지난 2개월간 지역 은행들의 부실에 따른 신용 조건 악화를 꼽았다.

WSJ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Wall Street Is Betting the Regional Bank Crisis Isn't Over Yet**
월스트리트, "지역은행 위기 아직 진행중"에 베팅

- 이번주 월요일 JP 모 건은 First Republic Bank를 구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초기 혼란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CEO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다.
- 그러나 그 다음날에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은 그와 상반된 입장과 행동을 취했다. 즉 그들은 지역은행들의 주가를 폭락시키면서 그의 공개적인 발언을 일축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마디로 일부 은행주들은 10% 이상 폭락했다.
- 한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약 1조 8,400억 불에 달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여파 문제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좌절된 저축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의 대체 상품을 찾아 이탈하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easury Flags Bigger Sales as Soon as August, Buybacks in 2024**연방 재무부, 빠르면 8월부터 크게 매각, 2024년에는 환매**

- 연방 재무부는 3년 연속 장기채권 판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내년 어느시점 부터 오래된 채권을 매입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갑자기 발표했다.
- 물론 이미 예상된 일은, 예산 적자가 확대되고 연준이 국채 보유를 꾸준히 줄이면서 연말에 장기 국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 재무부는 성명에서 "예상되는 중장기 차입 수요에 따라 재무부는 올해 말, 잠재적으로 빠르면 2023년 8월 환급(refunding) 발표에 맞춰 경매 규모를 소폭 늘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Bloomberg: NYC's \$16 Billion Gateway Tunnel Wins Key Access at Hudson Yards****뉴욕시 1백60억불 '게이트 터널' 한단계 진척**

-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게이트웨이 개발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이 터널의 미래 소유자인 암트랙에 2억9천1백만달러의 건설을 담당토록 했다.
- 한편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는 허드슨 강 아래(하저)에 새로운 지역 및 통근 철도 링크를 연결하여 미국내에서 가장 운행아 붐비는 여객 열차 노

선인 Northeast Corridor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Bloomberg 기사

[한미 경제 관계]

KOREA MATTERS FOR AMERICA MATTERS FOR KOREA: 한국과 미국간의 경제 관련 팸플릿 정보 (한국 영어 병기)

- 양국간 무역은 2021년에 1천9백45억불로 인도 태평양 국가중에 대미 3번째 수출 대국.
-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로 미국에 17만9천개의 직접적인 일자리, 간접적인 일자리는 14만7천개로서 총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미국내 한국의 투자는 2012년 한미 FTA 발표후에 187% 증가
- 미국 방문 한국인은 2019년을 기준으로 2010년과 비교해 2백30만명이 넘었다. 2019년 한국인의 미국 관광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금액은 88억불. 다른 조항들도 참조 바람.

KOREA MATTERS FOR AMERICA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FAA launches faster, high-altitude flight routes to avoid congestion along the East Coast

미동부 지역에 1백70개 새 비행 항로 개편

- 연방항공청은 혼잡한 미국 동부를 따라 약 170개의 새로운 비행 노선을 개설했다.
- 새로운 노선은 대부분 항공기가 순항할 수 있는 1만8천 피트 상공에 있으며, 많이 붐비는 노선의 혼잡을 줄이게 목표.
- FAA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항공사들이 뉴욕 지역의 여름 스케줄을 줄이는 문제를 계속 해결 중이다.

CNBC 기사

CNBC: SpaceX to spend about \$2 billion on Starship this year, as Elon Musk pushes to reach orbit

스페이스 X, 올해 비행선 궤도 진입에 20억 지출

- 엘런 머스트는 올해 이같은 비행선 Starship 개발 비용을 예상하면오 이번 달에 따르면 첫 비행을 추진하게 된다.
- 그는 다음번 비행은 궤도 진입이라고 말했다. 이 비행체는 발사대에서 이륙하면서 몇가지 이정표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CNBC 기사

Bloomberg: TSMC Plans for First German Chip Fab With Cost Up to €10 Billion

TSMC, 최대 100억 유로 규모의 독일 칩 공장 건설

- TSMC 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투자와 관련 8월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는 독일 Saxony 에 칩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 100억 유로(11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irbnb Revamps Site to Ease Tensions Between Guests, Hosts

Airbnb, 주택 단기임대 서비스 플랫폼 개편

- 에어비앤비는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을 맞이 전에 게스트와 호스트 간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사이트 개편 단행한다.
- 이번 사이트 개편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가 본사인 이 회사는 가격 투명성, 결제 절차, 경제성 등을 개선하고 50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과 업그레이드를 선보인다.
- 예컨대 객실 카테고리에는 1박당 평균 67달러의 요금으로 1백만 개 이상의 숙소가 등록된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백악관 경제학자 "급격한 금리 인상, 은행권에 부정적 영향"

백악관 선임 경제학자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은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멤버인 헤더 부세이는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은행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부세이의 발언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큰 이틀 일정의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시작된 날 나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